

### 1.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금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금의 원리와 형식들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왜 현금을 드리며, 현금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현금은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라는 신앙적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돈은 생존과 안전, 기회와 자유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만큼 돈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흉내 내듯 일종의 유사 전능성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러한 돈의 위력 앞에서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금은 단순한 금전적 행위가 아니라,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곧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은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우리의 신앙적 충성과 주권 고백을 표현하는 구체적 언어입니다.

즉, 현금을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제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 2. 현금은 공동체를 세우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동시에 현금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돋는 현실적 도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신 유일한 기관으로, 각 구성원이 받은 은사와 사명에 따라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교회 공간의 유지와 관리, 예배 준비 및 진행, 전문 사역자들의 사례, 아동·청소년 교육, 국내외 선교 지원, 나눔이 필요한 이웃 돕기 등, 모든 활동은 교우들의 현금으로 가능해집니다. 즉, 현금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도구이자,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일부에서는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거나 '재앙이 온다'는 식의 과장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헌금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계획하고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즉,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실질적 수단이며, 동시에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자 사명의 동역자"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연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 3. 헌금은 자발적 헌신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헌금은 결코 강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헌금 역시 강제적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후 9:7)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헌금은 각자의 형편과 신앙 양심에 따라 스스로 결단하는 자발적 헌신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 신뢰와 기쁨 속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헌금은 단순한 물질적 기부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헌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헌금은 돈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적 선언이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공동체적 연대의 행위이며,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헌신입니다. 결국 헌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동역을 보여주는 신앙적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돈이 주는 불안, 유혹, 혹은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 \_\_\_\_\_

-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 \_\_\_\_\_

-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느끼는 기쁨이나 감사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_\_\_\_\_

-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물질적 헌금 외에 내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일까요?

→ \_\_\_\_\_

-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가 내 삶에서는 무엇일까요? (감사, 사랑, 신뢰 등)

→ \_\_\_\_\_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유혹 앞에서 돈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헌금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